

#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에 따른 자립성장 방안

중견리더반 84번

하 혜 성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II.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이해	2
1.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개념 및 필요성	2
III.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 및 정책	4
1. 국내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과 실태	4
2.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정책	18
IV. 국내외 청년장애인 직업재활 사례	20
1. 국내사례	20
2. 해외사례	24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1. 문제점	24
2. 개선방안	25
VI. 결론 및 제언	27
1.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제언	27
(참고문헌)	30

## 표 목 차

1. (표1) 직업재활시설의 현황	5
2. (표2) 시도별 시설유형별 현황	5
3. (표3) 운영 주체별 현황	7
4. (표4) 이용장애인 주요현황	8
5. (표5) 근로장애인 주요현황	9
6. (표6) 장애인 근로자 현황	10
7. (표7) 근로장애인 평균 연령	11
8. (표8) 근로장애인중 발달장애(지적,자폐성)현황	12
9. (표9) 근로장애인중 정신장애 현황	14
10.(표10) 근로장애인중 장애정도별 현황	16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년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청년장애인들은 여전히 취업과 직업 유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직업을 갖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청년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은 사회 진출의 첫 단계이자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청년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현재의 직업재활 제도와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청년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며, 연구의 범위는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개념과 필요성, 국내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 및 실태, 관련 정책,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현행 직업재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포함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관련 논문, 정부 보고서, 통계 자료, 학술지 발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청년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청년장애인들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II.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이해**

### **1.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개념 및 필요성**

#### **1)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개념**

청년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직업을 통해 자립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직무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취업 장벽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을 목표로 하며, 직업재활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 **2)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필요성**

청년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개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의 보고에 따르면, 청년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비장애인 청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재활은 청년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합한 직업을 찾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청년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직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년장애인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2022)의 연구에서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장애인들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삶의 질 지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청년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국가 GDP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은 청년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비장애인 근로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재활을 통한 청년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개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 국가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청년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Ⅲ.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 및 실태

#### 1. 국내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정책

##### 1) 국내 직업재활시설 현황

주요 직업재활시설 현황은 <표1> 같이 2020년 720개소, 2021년 773개소(7.4% ↑), 2022년 792개소(2.5% ↑)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2020년은 직업적응훈련시설 34개소(4.7%), 보호작업장 619개소(86.0%), 근로사업장 67개소(9.3%)로 보호작업장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근로사업장에 비해 보호작업장이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직업적응훈련시설 38개소(4.9%), 보호작업장 667개소(86.3%), 근로사업장 68개소(8.8%)로 여전히 보호작업장 비중이 매우 높고 근로사업장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직업적응훈련시설 비중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소(5.1%), 보호작업장 682개소(86.1%), 근로사업장 70개소(8.8%)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3년 동안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소폭 증가하였다. 대도시 비율은 2020년 64.9%, 2021년 61.4%, 2022년 62.6%로 감소 후 증가하였다. 시설재원 자가비율은 2020년 71.1%, 2021년 69.5%, 2022년 70.0%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운영비 지원비율은 2020년 88.9%, 2021년 89.1%, 2022년 85.9%로 나타났다. 운영비 지원비율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장애인 직업재활 실태조사)

&lt;표 1&gt; 직업재활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시설 수				대도시 비율	시설재원 자가비율	운영비 지원 비율
	계	적응	보호	근로			
2020년	720 (100)	34 (4.7)	619 (86)	67 (9.3)	64.9	71.1	88.9
2021년	773 (100)	38 (4.9)	667 (86.3)	68 (8.8)	61.4	69.5	89.1
2022년	792 (100)	40 (5.1)	682 (86.1)	70 (8.8)	62.6	70.0	85.9

&lt;표 2&gt; 시도별·시설유형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적응	보호	근로	합계	적응	보호	근로	합계	적응	보호	근로	합계
전체		34 (4.7)	619 (86.0)	67 (9.3)	720 (100.0)	38 (4.9)	667 (86.3)	68 (8.8)	773 (100.0)	40 (5.1)	682 (86.1)	70 (8.8)	792 (100.0)
시도	서울	9 (6.5)	116 (84.1)	13 (9.4)	138 (100.0)	9 (6.5)	116 (84.1)	13 (9.4)	138 (100.0)	9 (6.5)	118 (84.9)	12 (8.6)	139 (100.0)
	부산	1 (2.4)	39 (95.1)	1 (2.4)	41 (100.0)	1 (2.4)	40 (95.2)	1 (2.4)	42 (100.0)	1 (2.3)	41 (95.3)	1 (2.3)	43 (100.0)
	대구	-	37 (88.1)	5 (11.9)	42 (100.0)	-	36 (87.8)	5 (12.2)	41 (100.0)	-	35 (87.5)	5 (12.5)	40 (100.0)
	인천	-	31 (91.2)	3 (8.8)	34 (100.0)	-	34 (91.9)	3 (8.1)	37 (100.0)	-	35 (92.1)	3 (7.9)	38 (100.0)
	광주	-	24 (82.8)	5 (17.2)	29 (100.0)	-	25 (83.3)	5 (16.7)	30 (100.0)	-	25 (83.3)	5 (16.7)	30 (100.0)
	대전	4 (14.3)	20 (71.4)	4 (14.3)	28 (100.0)	4 (13.3)	22 (73.3)	4 (13.3)	30 (100.0)	5 (15.2)	24 (72.7)	4 (12.1)	33 (100.0)
	울산	1 (6.7)	13 (86.7)	1 (6.7)	15 (100.0)	1 (5.9)	15 (88.2)	1 (5.9)	17 (100.0)	1 (5.9)	15 (88.2)	1 (5.9)	17 (100.0)
	세종	-	5 (83.3)	1 (16.7)	6 (100.0)	-	6 (85.7)	1 (14.3)	7 (100.0)	-	7 (87.5)	1 (12.5)	8 (100.0)
	경기	13 (9.0)	118 (81.4)	14 (9.7)	145 (100)	15 (8.8)	142 (83.)	14 (8.2)	171 (100)	17 (9.5)	146 (81.6)	16 (8.9)	179 (100)
	강원	2	29	5	36	2	34	4	40	1	36	3	40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적응	보호	근로	합계	적응	보호	근로	합계	적응	보호	근로	합계
	(5.6)	(80.6)	(13.9)	(100.0)	(5.0)	(85.0)	(10.0)	(100.0)	(2.5)	(90.0)	(7.5)	(100.0)
충북	3 (11.1)	23 (85.2)	1 (3.7)	27 (100.0)	3 (11.1)	23 (85.2)	1 (3.7)	27 (100.0)	3 (10.7)	24 (85.7)	1 (3.6)	28 (100.0)
충남	-	23 (100.0)	-	23 (100.0)	-	25 (96.2)	1 (3.8)	26 (100.0)	-	26 (96.3)	1 (3.7)	27 (100.0)
전북	1 (4.5)	19 (86.4)	2 (9.1)	22 (100.0)	3 (10.7)	23 (82.1)	2 (7.1)	28 (100.0)	3 (10.7)	23 (82.1)	2 (7.1)	28 (100.0)
전남	-	19 (86.4)	3 (13.6)	22 (100.0)	-	20 (90.9)	2 (9.1)	22 (100.0)	-	20 (90.9)	2 (9.1)	22 (100.0)
경북	-	44 (95.7)	2 (4.3)	46 (100.0)	-	46 (95.8)	2 (4.2)	48 (100.0)	-	46 (95.8)	2 (4.2)	48 (100.0)
경남	-	52 (92.9)	4 (7.1)	56 (100.0)	-	54 (91.5)	5 (8.5)	59 (100.0)	-	55 (88.7)	7 (11.3)	62 (100.0)
제주	-	7 (70.0)	3 (30.0)	10 (100.0)	-	6 (60.0)	4 (40.0)	10 (100.0)	-	6 (60.0)	4 (40.0)	10 (100.0)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사업장(이하 ‘근로사업장’이라 함),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함),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하 ‘직업적응훈련시설’이라 함) 3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유형별로 기능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 79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약 2만여명의 장애인과 5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장애인 직업재활 실태조사)

## 2) 운영주체별 현황

직업재활시설 운영주체별 현황은 <표3>과 같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복지법인 비중이 50% 이상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개년 모두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3개 합이 90% 이상으로 다수로 확인되었다. 운영법인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48개소, 2021년 75개소(56.3% ↑). 2022년은 89개소(18.8% ↑)로 큰 폭으

로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도 증가하였고, 재단법인은 감소 경향이며 학교법인, 직영, 개인시설은 유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운영주체별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720	100.0	773	100.0	792	100.0
운영 주체	사회복지법인	417	57.9	430	55.6	433	54.7
	사단법인	196	27.2	207	26.8	211	26.6
	재단법인	26	3.6	26	3.4	25	3.2
	학교법인	5	0.7	5	0.6	5	0.6
	직영(지방자치단체)	4	0.6	4	0.5	5	0.6
	개인시설	24	3.3	26	3.4	24	3.0
	사회적협동조합	48	6.7	75	9.7	89	11.2

### 3) 이용장애인 주요 현황

이용장애인 주요 현황은 <표4>와 같다. 이용장애인은 2020년 19,734명, 2021년 20,504명(3.9% ↑), 2022년 20,819명(1.5% ↑)이다. 평균 이용장애인은 2020년 27.4명, 2021년 26.5명(0.9명 ↓), 2022년 26.3명(0.2명 ↓)으로 지속적 감소하였다. 재가비율은 2020년 83.2%, 2021년 82.7%(0.5%p ↓), 2022년 83.1%(0.4%p ↑)로 나타났고, 이용장애인 여성비율은 2020년 36.5%, 2021년~2022년 36.7%(0.2%p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020년 33.4%, 2021년 34.7%(1.3%p ↑), 2022년 28.7%(6.0%p ↓)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은 전체 장애인가구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재활

시설에서는 근로장애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수급자의 감소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표 4> 이용장애인 주요 현황

(단위: 명, %)

구분	이용 장애인	평균 이용장애인				평균 재가 장애인	재가 비율	평균 여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 비율	평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기초생 활 보장 수급율
		계	적응	보호	근로						
2020년	19,734	27.4	20.9	26.1	42.9	22.8	83.2	10.0	36.5	9.2	33.4
2021년	20,504	26.5	20.9	25.2	43.0	21.9	82.7	9.7	36.7	9.2	34.7
2022년	20,819	26.3	21.3	25.0	42.2	21.9	83.1	9.6	36.7	7.6	28.7

#### 4) 근로장애인 주요 현황

근로장애인 주요 현황은 <표5>와 같다. 근로장애인은 2020년 12,712명, 2021년 13,600명(7.0%↑), 2022년 14,228명(4.6%↑)이다. 평균 근로장애인은 2020년 18.5명, 2021년 18.5명, 2022년 18.9명(0.4명↑)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비율은 2020년 79.1%, 2021년 80.0%(0.9%p↑), 2022년 82.0%(2.0%p↑)로 지속적 증가하였고, 정신장애인 비율은 2020년 5.3%, 2021년~2022년 5.0%(0.3%p↓)로 감소하였다. 중증장애인 비율은 2020년 94.6%, 2021년 95.1%(0.5%p↑), 2022년 91.3%(3.8%p↓)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 522천원, 2021년 556천원(6.5%↑), 2022년 648천원(16.5%↑)으로 지속적 증가하였고, 월평균 근무시간은 2020년~2021년 106시간, 2022년 119시간(12.3%↑)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율은 2020년 63.1%, 2021년 61.7%(1.4%p↓), 2022년 61.4%(0.3%p↓)로 지속적 감소하였고, 고용장려금 수급률은 2020년 69.6%, 2021년 71.3%(1.7%p↑), 2022년 68.4%(2.9%p↓)로 나타났다.

<표 5> 근로장애인 주요 현황

구분	시설수 (개소)	근로 장애인 (명)	평균 근로 장애인 (명)	발달 장애 비율 (%)	정신 장애 비율 (%)	중증 장애 비율 (%)	월평균 임금 (천원)	월평균 근무 시간 (시간)	최저 임금 적용제 외율 (%)	고용 장려 금 수급 률 (%)
2020년	686	12,712	18.5	79.1	5.3	94.6	522	106	63.1	69.6
2021년	735	13,600	18.5	80.0	5.0	95.1	556	106	61.7	71.3
2022년	752	14,228	18.9	82.0	5.0	91.3	648	119	61.4	68.4

\*시설수 :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 수

## 5) 장애인근로자 현황

장애인근로자 현황은 <표6>과 같다. 장애인근로자는 2020년 12,712명(장애인비율 96.3%), 2021년 13,600명(96.9%), 2022년 14,228명(97.0%)으로 지속적 증가하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2020년 96.9%, 2021년 97.8%, 2022년 9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장은 2020년 94.2%, 2021년 93.8%, 2022년 93.7로 지속적 감소하였다. 장애인비율은 2020년~2022년까지 3개년 모두 보호작업장이 근로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전남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전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개년 동안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이 증가하였고, 지속적 감소 지역은 없었다. 세종 지역이 2022년 75.3%로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7>에 보면 근로장애인의 평균연령은 36~37세로 최소 34~ 최대 42세가 참여하는 걸로 나타났다.

&lt;표 6&gt; 장애인근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장애인 근로자	비장애 인 근로자	합계	장애 인 비율	장애인 근로자	비장애 인 근로자	합계	장애 인 비율	장애인 근로자	비장애 인 근로자	합계	장애 인 비율
전체		12,712	484	13,196	96.3	13,600	428	14,028	96.9	14,228	442	14,670	97.0
시 설 유 형	적응	-	2	2	-	-	-	-	-	-	-	-	-
	보호	9,996	316	10,312	96.9	10,819	245	11,064	97.8	11,398	252	11,650	97.8
	근로	2,716	166	2,882	94.2	2,781	183	2,964	93.8	2,830	190	3,020	93.7
시 도	서울	2,666	142	2,808	94.9	2,747	109	2,856	96.2	2,765	152	2,917	94.8
	부산	740	10	750	98.7	776	13	789	98.4	824	9	833	98.9
	대구	635	7	642	98.9	631	17	648	97.4	622	14	636	97.8
	인천	516	17	533	96.8	553	21	574	96.3	608	15	623	97.6
	광주	622	26	648	96.0	655	19	674	97.2	691	14	705	98.0
	대전	411	12	423	97.2	411	9	420	97.9	459	5	464	98.9
	울산	229	14	243	94.2	226	13	239	94.6	257	10	267	96.3
	세종	95	8	103	92.2	113	9	122	92.6	125	41	166	75.3
	경기	2,560	63	2,623	97.6	2,928	74	3,002	97.5	3,104	51	3,155	98.4
	강원	509	24	533	95.5	555	20	575	96.5	542	19	561	96.6
	충북	577	10	587	98.3	614	10	624	98.4	627	7	634	98.9
	충남	379	41	420	90.2	441	15	456	96.7	465	10	475	97.9
	전북	422	12	434	97.2	463	12	475	97.5	479	8	487	98.4
	전남	318	8	326	97.5	336	5	341	98.5	367	10	377	97.3
	경북	757	27	784	96.6	787	20	807	97.5	816	12	828	98.6
	경남	941	35	976	96.4	1,020	37	1,057	96.5	1,130	38	1,168	96.7
	제주	335	28	363	92.3	344	25	369	93.2	347	27	374	92.8

&lt;표 7&gt; 근로장애인 평균연령

(단위: 명, 세)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근로장애인	평균연령	근로장애인	평균연령	근로장애인	평균연령
전체		12,712	36	13,542	37	14,228	37
시설유형	적응	-	-	-	-	-	-
	보호	9,996	36	10,751	36	11,398	36
	근로	2,716	39	2,791	39	2,831	38
시도	서울	2,666	37	2,732	38	2,765	38
	부산	740	35	778	36	824	36
	대구	635	35	631	35	622	35
	인천	516	35	553	36	608	36
	광주	622	34	655	35	691	35
	대전	411	37	411	38	459	37
	울산	229	36	226	37	257	37
	세종	95	38	113	38	125	38
	경기	2,560	35	2,913	36	3,104	35
	강원	509	42	531	42	542	42
	충북	577	35	614	36	627	37
	충남	379	35	441	36	465	35
	전북	422	38	463	38	479	39
	전남	318	35	336	36	367	36
	경북	757	37	781	37	816	38
	경남	941	35	1,020	36	1,130	36
	제주	335	36	344	36	347	36

## 6) 근로장애인 중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현황

근로장애인 중 발달장애 현황은 <표8>과 같다. 발달장애 근로자는 2020년 10,051명(발달장애비율 79.1%), 2021년 10,881명(80.0%), 2022년 11,667명(82.0%)으로 지속적 증가하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2020년 83.2%, 2021년 83.5%, 2022년 85.6%이고, 근로사업장은 2020년 63.8%, 2021년 66.3%, 2022년 67.4%로 두 시설 모두 지속적 증가하였다. 발달장애비율은 2020년~2022년까지 3개년 모두 보호작업장이 근로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남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세종, 강원 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개년 동안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이 증가 경향으로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해당되어 다수 지역에서 증가하였고, 부산 지역이 지속적 감소하였다. 대구, 울산 지역은 2021년에 비해 2022년 약 8% 증가하여 타 지역에 비해 증가 폭이 높고, 세종, 강원 지역은 3개년 모두 60%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발달장애비율로 확인되었다.

<표 8> 근로장애인 중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발달장애 (지적,자 폐)	근로 장애인	발달장 애 비율	발달장애 (지적,자폐 )	근로 장애인	발달장 애 비율	발달장애 (지적,자폐 )	근로 장애인	발달장 애 비율
전체		10,051	12,712	79.1	10,881	13,600	80.0	11,667	14,228	82.0
시설 유형	보호	8,317	9,996	83.2	9,038	10,819	83.5	9,759	11,398	85.6
	근로	1,734	2,716	63.8	1,843	2,781	66.3	1,908	2,830	67.4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발달장애 (지적,자 폐)	근로 장애인	발달장 애 비율	발달장애 (지적,자폐 )	근로 장애인	발달장 애 비율	발달장애 (지적,자폐 )	근로 장애인	발달장 애 비율
시 도	서울	2,011	2,666	75.4	2,112	2,747	76.9	2,171	2,765	78.5
	부산	646	740	87.3	676	776	87.1	717	824	87.0
	대구	508	635	80.0	520	631	82.4	562	622	90.4
	인천	451	516	87.4	487	553	88.1	533	608	87.73
	광주	528	622	84.9	566	655	86.4	619	691	89.6
	대전	301	411	73.2	304	411	74.0	354	459	77.1
	울산	166	229	72.5	165	226	73.0	210	257	81.7
	세종	61	95	64.2	78	113	69.0	82	125	65.6
	경기	2,015	2,560	78.7	2,296	2,928	78.4	2,491	3,104	80.3
	강원	339	509	66.6	375	555	67.6	367	542	67.7
	충북	489	577	84.7	531	614	86.5	551	627	87.9
	충남	319	379	84.2	368	441	83.4	394	465	84.7
	전북	340	422	80.6	375	463	81.0	402	479	83.9
	전남	261	318	82.1	277	336	82.4	322	367	87.7
	경북	610	757	80.6	655	787	83.2	688	816	84.3
	경남	751	941	79.8	829	1,020	81.3	933	1,130	82.6
	제주	255	335	76.1	267	344	77.6	271	347	78.1

\* 2022년 운영실적 발달장애인 수와 근로장애인 현황 발달장애인 수치 차이가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 7) 근로장애인 중 정신장애 현황

근로장애인 중 정신장애 현황은 <표9>와 같다. 정신장애인근로자는 2020년 674명(정신장애비율 5.3%), 2021년 686명(5.0%), 2022년 712명(5.0%)로 비율은 감소했으나 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2020년 5.4%, 2021년 5.1%, 2022년 5.1%로 비율은 감소했으나 인원은 증가하였고, 근로사업장은 2020년 5.0%, 2021년 4.8%, 2022년 4.7%로 비율과 인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비율은 2020년~2022년까지 3개년 모두 보호작업장이 근로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 세종, 제주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부산, 인천, 울산 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개년 동안 부산, 인천 지역이 증가하였고,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지역이 감소하였다. 울산은 3개년 모두 1.2~1.3%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정신장애비율로 확인되었다.

<표 9> 근로장애인 중 정신장애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신장애	근로 장애인	정신장 애 비율	정신장애	근로 장애인	정신장 애 비율	정신장애	근로 장애인	정신장 애 비율
전체		674	12,712	5.3	686	13,600	5.0	712	14,228	5.0
시설 유형	보호	539	9,996	5.4	552	10,819	5.1	579	11,398	5.1
	근로	135	2,716	5.0	134	2,781	4.8	133	2,830	4.7
시 도	서울	164	2,666	6.2	172	2,747	6.3	168	2,765	6.1
	부산	18	740	2.4	19	776	2.4	21	824	2.5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신장애	근로 장애인	정신장 애 비율	정신장애	근로 장애인	정신장 애 비율	정신장애	근로 장애인	정신장 애 비율
대구	37	635	5.8	33	631	5.2	33	622	5.3
인천	13	516	2.5	16	553	2.9	18	608	3.0
광주	28	622	4.5	27	655	4.1	28	691	4.1
대전	54	411	13.1	46	411	11.2	55	459	12.0
울산	3	229	1.3	3	226	1.3	3	257	1.2
세종	13	95	13.7	25	113	22.1	26	125	20.8
경기	107	2,560	4.2	124	2,928	4.2	131	3,104	4.2
강원	31	509	6.1	30	555	5.4	26	542	4.8
충북	22	577	3.8	22	614	3.6	23	627	3.7
충남	14	379	3.7	13	441	2.9	14	465	3.0
전북	25	422	5.9	24	463	5.2	25	479	5.2
전남	16	318	5.0	18	336	5.4	17	367	4.6
경북	36	757	4.8	24	787	3.0	29	816	3.6
경남	51	941	5.4	52	1,020	5.1	61	1,130	5.4
제주	42	335	12.5	38	344	11.0	34	347	9.8

## 8) 근로장애인 장애정도별 현황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 현황은 <표10>과 같다. 중증장애인근로자는 2020년 12,025명(중증장애비율5 94.6%), 2021년 12,938명(95.1%), 2022년 12,997명(91.3%)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2020년 96.0%, 2021년 96.5%, 2022년 93.3%로 인원은 증가하였고, 근로사업장은 2020년 89.4%, 2021년 89.9%, 2022년 83.6%로 나타났다. 중증장애비율은 3개년 모두 보호작업장이 근로사업

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인천, 광주, 세종, 충북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전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개년 동안 증가한 지역은 없고,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이 감소하였다.

<표 10> 근로장애인 장애정도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중증 장애인	근로 장애인	중증장애 비율	중증 장애인	근로 장애인	중증장애 비율	중증 장애인	근로 장애인	중증장애 비율
전체		12,025	12,712	94.6	12,938	13,600	95.1	12,997	14,228	91.3
시설 유형	보호	9,596	9,996	96.0	10,437	10,819	96.5	10,631	11,398	93.3
	근로	2,429	2,716	89.4	2,501	2,781	89.9	2,366	2,830	83.6
시도	서울	2,549	2,666	95.6	2,640	2,747	96.1	2,502	2,765	90.5
	부산	716	740	96.8	751	776	96.8	798	824	96.8
	대구	595	635	93.7	595	631	94.3	564	622	90.7
	인천	498	516	96.5	543	553	98.2	579	608	95.2
	광주	602	622	96.8	638	655	97.4	658	691	95.2
	대전	388	411	94.4	387	411	94.2	412	459	89.8
	울산	210	229	91.7	209	226	92.5	221	257	86.0
	세종	82	95	86.3	111	113	98.2	109	125	87.2
	경기	2,376	2,560	92.8	2,744	2,928	93.7	2,788	3,104	89.8
	강원	451	509	88.6	491	555	88.5	478	542	88.2
	충북	559	577	96.9	594	614	96.7	590	627	94.1
	충남	362	379	95.5	421	441	95.5	439	465	94.4
	전북	400	422	94.8	435	463	94.0	439	479	91.6
	전남	305	318	95.9	322	336	95.8	339	367	92.4
	경북	714	757	94.3	752	787	95.6	756	816	92.6
	경남	895	941	95.1	971	1,020	95.2	1,017	1,130	90.0
	제주	323	335	96.4	334	344	97.1	308	347	88.8

## 9) 근로장애인 근로여건

근로장애인 근로여건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표11>과 같다. 2020년~2021년 106시간, 2022년 119시간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2020년~2021년 101시간, 2022년 111시간으로 나타났고, 근로사업장은 2020년 152시간, 2021년 146시간, 2022년 155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 월평균 근무시간은 3개년 모두 근로사업장이 보호작업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2020년 522천원, 2021년 556천원, 2022년 648천원으로 지속적 증가하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2020년 451천원, 2021년 487천원, 2022년 498천원이고, 근로사업장은 2020년 1,178천원, 2021년 1,206천원, 2022년 1,255천원으로 두 시설유형 모두 지속적 증가하였다.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3개년 모두 근로사업장이 보호작업장보다 2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 월평균 임금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 생산 및 판매 감소의 영향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근로장애인 평균 시급은 2020년 4,903원, 2021년 5,038원, 2022년 5,447원으로 지속적 증가하였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작업장은 2020년 4,590원, 2021년 4,765원, 2022년 4,782원으로 지속적 증가하였고, 근로사업장은 2020년 7,796원, 2021년 7,628원, 2022년 8,126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 평균 시급은 3개년 모두 보호작업장이 근로사업장의 약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1> 근로장애인 근무여건

(단위: 시간,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보호	근로	계	보호	근로	계	보호	근로	계
월평균 근무시간	101	152	106	101	146	106	111	155	119
월평균 임금(천원)	451	1,178	522	487	1,206	556	498	1,255	648
평균시급(원)	4,590	7,796	4,903	4,765	7,628	5,038	4,782	8,126	5,447

## 2.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및 프로그램

최근 발표된 “제5차 및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의하면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증 및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다양한 직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둘째, 직업훈련과 취업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및 맞춤형 훈련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2024년에 개소하여 장애인 직업훈련 기반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하여 IT 분야 등에서 고숙련 장애인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셋째, 고용의무 이행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에 대해 2025년까지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를 강화하고 있음. 넷째, 전문상담인력 도입으로 장애인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인 '잡 컨설턴트'를 신설하여 심층상담과 개인별

고용지원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섯째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지도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 발표)

국내 청년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핵심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되었으며,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정책은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인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기관등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임.

최근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직업재활의 범위가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청년 장애인 예비 초기창업자를 위한 문제정의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년장애인의 다양한 직업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컴퓨터 기초,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등 IT 관련 직무 훈련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데이터 입력, 문서 작성, 전화 응대 등 사무직 관련 기술 훈련을 하여 장애인이 사무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목공, 도예, 재봉 등 손기술을 활용한 직무 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및 지원정책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속 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장애인 직업재활 현황과 정책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Ⅳ. 국내외 청년장애인 직업재활 사례 연구**

### **1. 국내 우수 사례**

#### **1)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청년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고급 프로그래밍까지 다양한 디지털 직무 훈련을 통해 청년장애인이 IT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개인의 역량과 관심사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소프트웨어 테스터, 데이터 라벨러, 데이터 정합성 분석)을 제공하여 각자의 강점을 최대화하였고,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하여 실습 기회를 제공,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① 데이터 라벨러로의 취업: 복지관의 데이터 분석 및 처리 교육을 통해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데이터 정리 기술을 습득하였고, 데이터 라벨러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예: 풀무원의 데이터 라벨러 원아라씨)

② 웹 개발자로의 성장 : 웹 개발 코스( HTML, CSS, JavaScript 등)를 수료한 후 스타트업에 웹 개발자로 취업후 웹사이트 제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

## **2)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산업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청년장애인에게 제조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품질관리 교육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훈련 수료후에는 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고용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 ① 제조업 취업 사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직무적응프로그램을 통해 기계 조작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
- ② 품질 관리 담당자로의 취업: 품질 관리 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직무를 맡게 되었으며, 복지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3) 부천시 장애인복지관**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은 청년장애인들에게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① 외식업체에 취업 : 외식업에 관심이 많은 장애인에게 외식업 관련 훈련과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 응대 기술을 훈련하여 복지관의 지역업체인 이랜드파크 외식부천뉴코아에 연계하여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예 : 이랜드파크 김대진씨 취업등)



#### **4) 광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

서산나래는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2018년에 개소하여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제과제빵 기술을 훈련시키고, 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빵과 쿠키를 판매하는 있음. 이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제과제빵 기술을 교육하여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서산나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홍보하고 있음.

이러한 우수 사례들은 청년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속 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 지역사회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2. 해외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의 선진 사례**

### **1) 미국의 사례**

#### **① Microsoft의 Autism Hiring Program**

Microsoft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Autism Hiring Program"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기술 업계에서 자폐인들의 특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패턴 인식, 데이터 분석 능력 등) 과 멘토링을 통해 직무 적응을 돕고, 전통적인 면접 방식 대신, 지원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창의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평가를 하여 직무

조정 및 환경 지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분석가로 취업)

② Project SEARCH: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어린이병원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집중적인 직업 훈련과 인턴십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참가자의 약 70%가 경쟁력 있는 병원, 정부 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에 성공.

③ Vocational Rehabilitation (VR) 프로그램: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취업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과 개별화된 직업 상담, 직업 평가,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2) 독일의 알스터 워크

알스터워크(Alsterarbeit)는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에 통합 및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음.(Disability:IN) .

장애인 근로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직무를 수행과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로 포장작업, 조립 작업, 인쇄 및 출판 업무, 식품 제조,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무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배정되며, 각 개인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3) 호주 - 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호주의 NDIS(국가정보시스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직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직업 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필요와

목표에 맞춘 개인별 지원과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고용 알선 및 직무 적응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은 많은 청년장애인들이 IT, 서비스업, 예술 분야 등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하여 그들의 경력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

## **VI.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문제점**

현행 직업재활 시스템은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그 효과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낮은 임금 수준이다. 특히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이 매우 낮아,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직업재활의 궁극적 목표인 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부족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상담에서 취업 후 적응 지원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나 현행 시스템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해야하나, 장애인을 위한 직무 개발이 IT, 디지털 등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고, 현재 개발된 직무가 장애인들의 다양한 역

량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직업재활계획의 체계성 부족이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계획을 위한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다섯째, 취업 후 적응 지원의 부족이다. 직업재활 서비스가 취업 이후의 적응 지원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않아, 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 유지와 직장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여섯째, 의무고용률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로 낮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용 문제로 인해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제한되고,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직업 능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2. 개선방안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임금체계 개선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임금체계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독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둘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강화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청년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직업상담에서 취업 후 적응 지원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별 사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별화된 접근은 청년장애인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중증 및 고학력 장애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때 이들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직업재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고급 직무 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IT 분야나 전문직 진출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학력 청년장애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장애인들에게 인턴십, 현장훈련, 직업체험 등 실제적인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 유지와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직장 내 멘토링, 직무 교육,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고용 의무 강화로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통해 의무 고용을 촉진 및 확대해야 한다.(의무고용률3.4% → 3.8%) 이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러한, 다각도의 개선방안들을 통해 청년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더욱 효과적인 직업재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청년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Ⅶ. 결론 및 제언**

### **1.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제언**

현행 청년장애인 직업재활은 앞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낮은 임금 수준과 장애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부족, 서비스의 질적 향상 필요성, 실제적인 직장 경험 제공 부족, 취업 후 적응 지원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청년장애인의 효과적인 직업재활과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고 청년장애인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각 청년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장애인의 능력, 관심사, 장애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둘째, 실제적인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인턴십, 현장실습, 직업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실제 직장 경험은 청년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직업재활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도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중증 및 고학력 장애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맞는 전문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직업재활 전문가, 직업 상담사, 직업 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재정 지원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현행 지원체계로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단체, 기업, 교육기관, 지역사회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언들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인 고용 정책을 통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 기업,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책적 차원에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고, 청년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와,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대지원 필요하다.

셋째, 실무적 차원에서는 개별화된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턴십,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와 취업 후 적응 지원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통합적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고용 관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정

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자립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년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은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이들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이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모든 구성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2). 장애인 고용 동향. 세종: 고용노동부.
- 김용득, 박숙경 (202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현황과 과제. 장애와 고용, 31(2), 5-30.
-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발표 (2023. 5. 14)<https://www.korea.kr/video/index.html?newsId=148915128>
-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청년 장애인 예비 초기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2023) : 장애인 직업재활 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2023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2)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평가 및 향후과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 2022 현안과제 자료.